

생각을 쉬면 부처는 저절로 나타난다

중생의 마음 부처의 마음

중생들은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않으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 생각 돌아키면 저절로 쉬어지고 비워지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고 온갖 사랑 분별에 사로잡혀, 찾고 또 구하려고 한다. 생각을 쉬고 쓸데없는 망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무념 상태에 이르면, 부처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으라.'는 말에 속아, 아무 일도 안하거나 일어나는 생각을 일부러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선지식의 가르침을 능멸하는 것과 다름없다. 안목이 열린 사람이 쉬고 비우는 것과 열지 못한 사람이 쉬고 비우는 것은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이 마음 그대로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라 해서 마음이 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항상 부처나 중생이나 상관없이 늘 함께 하고 있다. 단지 '마음'이라고 이름 했을 뿐, 어떤 형태로 존재하거나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 했듯이, 마음은 깨달은 사람만이 증거 할 수 있다. 어리석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을 듣고 이치를 좇기만 하며, 실제로 근본과 묵묵히 결합하여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갖지는 못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4>



한다.

또한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축되어 있어서, 닦아 더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는 육도만행과 온갖 공덕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어서, 더 이상 공덕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을 변화하는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바 없이 지키는 것! 이것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언어를 빌려서 가깝게 표현한 것뿐이다. 실제로는 본인이 깨달아 봐야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법의 기쁨, 곧 범희선열락(法喜禪悅樂)을 알게 된다.

이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세상을 사는 것이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해질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당장 눈앞의 세상사 고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인연을 만나면 곧 배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다. 만일 이것이 부처임을 결코 믿지 않고, 결모습(相)에 집착하여 수행하려 하며, 구함으로써 공부로 삼는다면, 그 모두가 망상일 뿐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에 흔들려,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만약 도를 깨치게 되면, 그대로 믿고 내려놓으면 된다. 사실은 내려놓을 것도 없는 것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밖으로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에, 흔한 말로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본래 비울 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든 비워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공부하고는 영영 멀어지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 마음은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며, 또한 다른 마음도 없다.

이미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마음먹은 대로 되든 안 되든, 흐름 따라 내려놓으면 언젠가 쓰임새에 따라 다 드러날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섞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고요한 상태라면, 그것이 곧 본래 내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인데 무엇이 걱정인가?

이 마음은 허공같이 맑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없다.

'마음이란 원래 허공처럼 깨끗하여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이것도 깨달음에 눈뜬 사람들 사이의 말이다. 모르는 사람은 깨끗하고 맑은 것이 마음인 줄 아는 분별심에 빠져, 그것을 찾고 구하고자 애를 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본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저 없이 방향을 끝낸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의 그림자에 흔들려 허튼 짓을 하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54



부처님께서 오직 나만을 위해 법을 설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설하지 않으신다

(서품(序品) 마하반야바라밀경)

금서 속의 명언

금서(禁書), 불온한 그 무엇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듯 음산한 기운이 풍겨온다. 불온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온건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만큼 판(板)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판, 이라는 제도권을 지켜내야 하는 기독교 세력으로서의 감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금서에 피의 냄새가 나는 것도 그러한 탓이리라.

그런 금서는 불교사에서도 존재한다. <탄이초(歎異抄)>같은 것이 그 한 예이다. 이 책은 이름부터가 불온(?)하다. 감히 "이탄을 탄식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탄이초>의 저자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가르침은 이단이라는 것을 못 박고, 그러한 이단의 사실(邪說)을 뿌리뽑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금서의 매력은 페이지마다 불속 불속 머리를 내밀고 나오는 명언(名言)들이 있다. 사람들을 잡아끈다. 신란은 가히 명언의 명수(名手)다. 예를 들면, 후사에서 인용되는 신란의 이런 말은 어떤가. "아미타불이 오점(五劫)이라는 긴 사유 끝에 세우신 서원을 깊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오로지 나 신란을 위한 것이었다."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아미타불은 원래 법장(法藏)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도자였다. 마침내 부처님이 되었는데, 그 수행기간이 5겁이라는 긴 세월이었다. <탄이초>의 저자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가르침은 이단이라는 것을 못 박고, 그러한 이단의 사실(邪說)을 뿌리뽑고자 한다.

그 48원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추체험(追體驗)해 본 끝에 신란이 얻은 결론: 아, 저 48가지 원은 모두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제해 주시려고 세우신 것이로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극락에 왕생하는 것은 결정적이다.

명언은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담고 있는 말이다. 흔히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굳게 견지(堅持)하고 있다. 예컨대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러저러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금강경>을 읽었던 것 아닌가. 그러나 지금 신란은 수보리가 되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경전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설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다.

물론 <마하반야바라밀경(대반야경)>의 이 말씀은 신란의 말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경전에 의하는 한, 그것은 삼천대천세계의 국토와 시방의 중생들이 하는 착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마하살들을 위해서 반야바라밀다를 설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경전 말씀을 내가 신란의 말을 가지고 와서 해독하는 것은 일종의 오독(誤讀)이다. 하지만 창조적 오독이다. 우리 스스로 1인칭 시점으로, 우리 스스로 수보리가 되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오독을 해왔다. 재미있지 않은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그림 · 박구원

<탄이초>에서 같이 탄식하고 있는 이단의 사실은 주로 염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여러 견해를 가리킨다. 편저자 유이엔(唯円)은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스승 신란(親鸞, 1173-1262)의 가르침을 들은 바 그대로 전한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如是我聞)"라는 것이다. 그런 뒤에 11장에서 18장까지는 그가 견뎌왔던 이단의 주장을 비판한다. 그런 뒤에 후서(後序)까지 부처서 "믿음에 대한 그릇된 주장하는 한탄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단 타파를 기치로 내건 이 책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금서로 지정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을 남긴 주인공 렌노(蓮如)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한다.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얼핏 렌노의 태도는 모순된다. 필사를 하면서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누군가는 보아야 할 터이지만,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렌노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주성원의 기초 교리 <49>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⑤ 칠각지(七覺支)

불교의 모든 수행도는 깨달음을 향하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 삼십칠보리분법도 예외는 아니다. 초기불교의 이 수행도도 부처님이 증득한 열반의 세계에 다다르기 위한 여러 관점의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칠각지(七覺支)도 그 중에 하나이다. 범어로는 "sapta-bodhy-anga (삼파보디양가)"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한 일곱 가지의 종류의 수행도를 의미한다.

그 일곱 가지에는 염각지·택법각지·정진각지·회각지·경안각지·정각지·사각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지(覺支)라는 것은 깨달음의 갈래라는 의미로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의 수행항목을 가리킨다.

초기불교에서는 호흡을 고르며 정신을 통일하는 수식관(數息觀)을 행하고 난 뒤 사념처관(四念處觀)을 닦고 그 다음에 바로 칠각지를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의 지혜(明)와 해탈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칠각지는 삼십칠보리분법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칠각지에는 명상수행과 지혜의 두 가지 성향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초기불교의 경전인 <잡아함경(雜阿含經)>에서는 칠각지를 통해 증득할 수 있는 것은 심해탈(心解脫)과 해해탈(慧解脫)이라고 하여 칠각지 수행의 구제

적인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칠각지의 수행을 통해 탐욕을 버리는 심해탈과 무명을 여의는 해해탈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칠각지 중에 첫 번째는 염각지(念覺支)이다. 염각지는 붓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기억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명상[定]에도 지혜[慧]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로 인해 혼탁하거나 떠돌아다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택법각지(擇法覺支)이다. 택법각지는 염각지를 기반으로 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택(擇)은 간택의 의미이다. 즉 바른 가르침은 취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버린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찰하고 분별하여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

셋 번째는 정진각지(精進覺支)이다. 정진각지는 지혜를 기반으로 선택된 바른 법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노력은 그냥 노력이 아니라 바른 노력이다.

붓다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취해 율행정진 했듯이 정진각지 또한 바른 법에 대해 끊임없이 행하는 바른 노력을 말한다.

네 번째는 회각지(喜覺支)이다. 회각지는 열심히 수행해 정진한 자에게 그 결과로 평안한 기쁨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일중에 부단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환희심은 잘못된 견해가 아닌 참된 진리를 얻으려는 노력일 경우에만 생긴다.

다섯 번째는 경안각지(輕安覺支)이다. 경안각지는 회각지를 얻은 뒤 몸과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 지는 것을 말한다. 깊은 명상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견해나 번뇌를 끊어[除覺支] 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정각지(定覺支)이다. 정각지는 경안각지를 얻은 뒤 마음을 집중하는 것[samadhi]을 말한다. 몸과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에서 더욱 깊은 명상에 들어가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통일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사각지(捨覺支)이다. 사각지의 사(捨)는 버려서 완전히 격리한다는 뜻이며 대상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칠각지 중에 택법각지·정진각지·회각지는 혜(慧)에, 경안각지·정각지·사각지는 정(定)에 해당하고 염각지는 정과 혜 모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칠각지를 바르게 수행하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마음과 지혜의 해탈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本지기자

탐욕·무명 동시에 여의는 수승한 수행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승주 : 도량석, 중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재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정,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응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면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다. 강 주 : 석범은 스님, 월봉 스님

2.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승가회총무원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